

1) 동정

- ▶ 양성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은 '2010간행물문화대상(저작상, 출판인쇄상, 특별상) 후보자를 9월 27일까지 접수한다.

2) 부음

- ▶ 최철성 (주)오비에프커뮤니케이션 사장의 모친이 지난 7월 15일 별세했다.

3) 화촉

- ▶ 유진 (주)오성프린트 사장의 장녀 향수 양이 오는 9월 4일 리치컨벤션&웨딩(CTS 방송국 건물) 11층에서 화촉을 밝힌다.

4) 변경

- ▶ 세종씨앤피(주) 대표이사가 나기용씨에서 나경록씨로 변경됐다.
- ▶ 아미고디자인 대표가 이순옥씨에서 이정원씨로 변경됐다.
- ▶ 상림문화(주)가 대표이사가 김재근씨에서 김윤희씨로 변경됐고, 사업장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6 삼화까뮤빌딩 별관 301호로 이전했다.
- ▶ 호박컴문화사(대표 박기성)는 최근 업체명을 호박앤컴퍼니로 변경하고, 사업장도 서울시 중구 목정동 29-26 은산빌딩으로 이전했다.
- ▶ 참가획(대표 정대웅)이 최근 업체명을 참가획에서 카피에드로 변경했다.

5) 이전

- ▶ 대한교역(주)(대표이사 전재식)는 최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48 대륭테크노타운3차 305호로 이전했다.
- ▶ 동진문화사(대표 이완우)는 최근 서울시 중구 필동1가 43-1 동화빌딩 311호로 이전했다.

인쇄단체 · 기관뉴스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

9월 14일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서 개최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와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충원),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회장 김진배)가 공동 주최하는 2010년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이 오는 1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문화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 등 정부포상과 인쇄문화대상(경영부문, 기술부문, 진흥부문, 특별부문), 협회장 표창이 수여된다.

대한인쇄문화협회 정기이사회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지난 8월 19일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시 일미정에서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업무보고와 국고지원 사업 추진 상황, 2/4분기 재무제표 보고 등 상정의안들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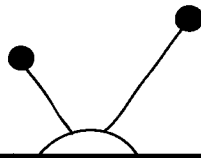
이날 의안심의에 앞서 홍우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인쇄업계는 아직 ‘깜깜’한 실정”이라면서 “이런 가운데서도 업계와 협회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사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협회에서는 앞으로 업계 공동발전과 미래 비전을 위한 일에 매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세계인쇄문화박물관 건립, 인쇄진흥재단 설립, 세계인쇄대백과사전 발간, 친환경 인증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협, 경남 거창·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직지 및 인쇄문화 홍보전시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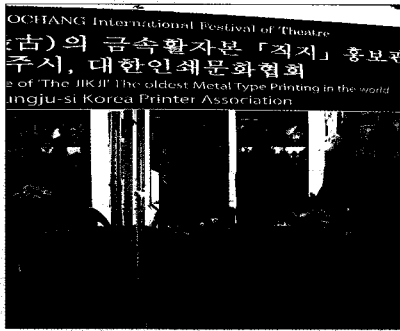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청주교인쇄박물관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금속활자로 인쇄된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의 창조적 가치를 알리고, 현대의 인쇄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22회 거창국제연극제 북 페스티벌’ 행사와 8월 14~15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10 만남’ 행사장을 찾아 직지 및 인쇄문화홍보관을 설





치 운영했다.

거창국제연극제 북 페스티벌은 '22회 거창국제연극제' 부대행사로 도서전시와 저명작가 초청 강연회, 북 아트 체험, 동화 구연 체험, 책 나누기 행사 등으로 다양하게 펼쳐졌으며 '2010 만남' 행사는 전국자원봉사자들의 대규모로 참여하는 전국 축제로 진행됐다.



인협과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양 행사장에 18m²(3m×6m) 크기의 전시부스에 직지 영인본(하권), 복원본(상권)과 직지 금속활자 제작과정 디오라마 직지 홍보 패널 등을 전시해 직지의 인류문화사적 가치와, 금속활자가 인류발달에 끼친 영향, 과학발달사에서의 역할 등을 중점 홍보했다. 또 자원봉사자가 현지 상주하며 관람안내와 직지 금속활자 인쇄체험을 실시해 관람자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 할 수 있도록 운영했으며 홍보 책자를 통한 홍보도 병행했다.

인협과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지난 5월 파주출판도시에서 개최한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10여개소의 전국단위 행사 및 우수축제 행사장과 종합대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을 찾아 직지 및 인쇄문화 순회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재기 정문사문화 대표이사 고인쇄기기 · 고미술품 인협에 기증

민재기 정문사문화(주) 대표이사(대한인쇄문화협회 명예회장)는 최근 대한인쇄문화협회에 1970년대에 사용되



던 명함인쇄기 2대와 스텐실기 1대, 고미술품 3점을 기증했다. 민재기 사장은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 세계인쇄문화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그동안 보관해 오던 고인쇄기기를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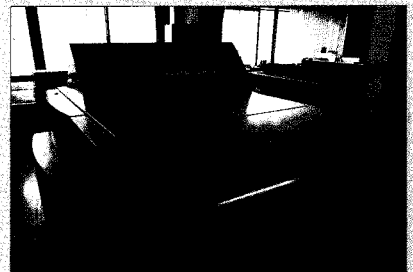
롯해 파피루스를 이용해 만든 그림과 세계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그림을 기증하게 됐다"면서 "기증품들이 우리나라 인쇄역사의 장에 전시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우동 인협 회장은 이에 대해 "기증자의 소중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인쇄센터

하이델 프리넥 워크플로 및 CTP 수프라세터 가동

서울인쇄센터(이사장 조정석)는 최근 하이델베르크의 프리넥 워크플로와 써멀 CTP, 수프라세터를 도입하고 가동을 시작했다. 서울시의 인쇄업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동이용 장비로서 선택된 프리넥 워크플로와 CTP는 교육의 목적



과 함께 인쇄 업체들의 공동 이용으로 인쇄원가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설치된 프리넥 워크플로는 프리프레스, 인쇄, 디지털 인쇄 분야 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제품들이 설치되어 인쇄 공정 통합 워크플로의 그 효과와 장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써멀 CTP인 수프라세터(SupraSetter)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직접 개발한 레이저를 장착하고 최고의 이미지와 높은 생산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텔리전트 다이오드 시스템(IDS)은 하나의 다이오드가 손상으로 작동을 멈춘다 하더라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며 계속 구동할 수 있다. 온도 보정 기능은 수프라세터 레이저의 내부 온도와 드럼의 표면 온도를 안정시켜 레이저의 수명을 최대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편 맞춤이 부정확해 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서울인쇄센터는 이 수프라세터를 이용해 친환경의 무현상판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 나라장터서 대리입찰 못한다

앞으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PC에 원격 접속해 대리 입찰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최근 다른 업체의 입찰자 PC를 원격 접속해 불법으로 입찰서를 내는 등의 대리입찰 행위를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원격 PC공유 접속차단 시스템'을 나라장터에 도입, 안정성 등을 검증한 결과 안정성이 확인돼 지난 7월 23일부터 본격 적용하고 있다.

8월부터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 대리입찰은 불가능해졌으나 입찰 브로커 등이 원격 PC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문인증 받은 다른 입찰자의 PC로 담합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원격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입찰서를 작성, 제출할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이를 감지, 팝업 안내문과 함께 입찰금액을 입력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는 입찰자는 PC내의 원격공유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가동하지 않아야 입찰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서울인쇄조합, 조합원 대상 무료 법률상담 실시 매월 두 번째 월요일 16시부터 18시까지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은 '조합원 대상 무료 법률상담'을 매월 1회 실시하기로 하고 9월 13일(월)에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인쇄조합원에 한하여 기업운영에 관련된 법률적 문제는 물론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상담에 이르기까지 강양희 서울인쇄조합 고문변호사로부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에 한하여 매월 5명씩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매월 두 번째 월요일(16시부터~18시까지), 조합 회의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일시는 직접 통보를 하며, 상담일시를 통보받지 못한 조합원들은 개별적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문의 및 접수 : 02-333-8631(내선 36 정재우 과장)

청주고인쇄박물관, 고려대장경 염원 개최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지난 8월 3일부터 29일까지 고려대장경 조성 천년을 맞아 대장경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고려대장경 '천년의 염원' 특별전을 올 대충청방문의 해 기념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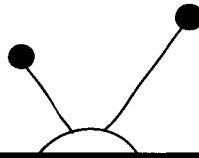
이번에 전시된 자료 가운데 초조대장경(1011~1087)판은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되고 소수의 인경자료를만 국내와 일본 등에 전해지고 있으며, 대장경은 '직지'와 더불어 한국의 인쇄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고려시대 호국의 염원과 불교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고려대장경의 규모는 재조대장경(1236-1251, 팔만대장경)을 통해 엿볼 수 있는데,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된 대장경은 약8만6000여 판의 양면에 5200만자로 정교하게 새겨진 경전은 인류문화사에 대표적인 불가사의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대장경이 보관된 장경관전은 수다라장, 법보전, 동·서 시간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판을 수백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던 과학적 건축구조로 지난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또한 팔만대장경판이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했다.

청소년 유해 전단 제작 유의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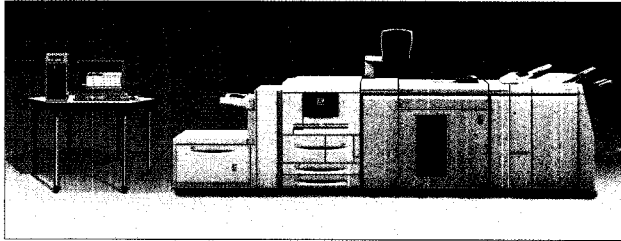
청소년 유해 인쇄물(성매매암시전단, 폰팅·광고전단)을 제작한 인쇄업자에 대한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쇄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 특사경는 앞으로 역점 추진과제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제작에 대해 추적활동 T/F를 확대, 운영하고 처벌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인쇄 · 프리프레스뉴스

두산동아, 두산그룹 사내 출력센터 구축



두산동아(주)(대표이사 성낙양)는 지난 8월 17일 한국후지제록스(주)(대표이사 정광은)와 함께 두산그룹계열 3개사의 문서 제작을 대행하는 사내출력센터를 경남 창원시에 구축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내 출력센터는 두산그룹 계열사가 밀집한 창원시의 두산 메카텍 창원 공장 내에 185m²의 규모로 구축됐으며, 다양한 종류의 문서 제작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디지털 인쇄기, 도면 출력기, 디지털 복합기 등 한국후지제록스의 제품 총 9대와 온라인 인쇄 주문 시스템이 설치됐다.

두산동아(주) 고동형 POD사업팀장은 “그룹사의 설계도면과 같은 중요 문서들을 사내의 출력센터를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리상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보안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 인쇄 주문 시스템을 통해 모든 문서 작업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향상되고 그룹사내 결제시스템을 통한 자동정산 프로그램에 의해 비용 정산 또한 투명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산동아는 이번 사내 출력센터 구축을 통해 두산그룹 계열사의 매뉴얼, 도면, 교육자료 등을 직접 디자인하고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배송에 이르기까지 문서 관리의 전 과정을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져 업무의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기업 정보에 대한 외부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문서 보안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인 것은 물론 각 계열사의 문서 제작 프로세스를 일원화함에 따라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두산동아 측은 설명했다.

한국후지제록스 황인태 영업본부장은 “보안강화와 비용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내 출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두산 계열사내 출

력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향후 서비스 대상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진에드컴, 인쇄업계 첫 아이폰 어플 출시

(주)성진에드컴(대표이사 이정희)은 인쇄업계 최초로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성진에드컴의 다양한 제품안내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언제 어디서나 제품주문을 할 수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마이페이지 기능으로 고객의 주문내역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문통계 및 분석을 제공하고 아이폰에서 직접 바코드를 인식하여 전표 출력이 없어도 제품출고가 가능하다. 또한, 현재 고객의 위치정보로 가까운 DTPIA센터의 위치정보 안내 서비스도 할 예정이다.



성진에드컴 관계자는 “10월부터는 제품안내와 제품주문도 가능한 버전도 제공할 계획이며 다양한 고객편의 서비스까지 연계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갈 것”이라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www.dtpia.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도GL / 성도솔루션

백두대간 종주 3차 덕유산 등정



(주)성도GL/(주)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7월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덕유산을 등정해 백두대간 종주 선포식을 가

진 이래 세 번째 종주 코스를 완주했다고 전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한반도의 주요한 산세를 모두 끼고 있는 등정 코스이다. 성도GL/성도솔루원에서는 백두대간 등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배려와 개인의 성장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요한 교육의 시간을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성도GL/성도솔루원은 “Graphic Arts HUB in Korea!”의 비전 아래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노플레이트

천부·금성정공·세종·아주하이텍과 MOU체결

CTP판재를 공급하고 있는 (주)이노플레이트(대표이사 정태환)는 최근 국내 감광제 생산업체인 (주)천부, CTP판재 전문회사인 금성정공(주), (주)세종, CTP 세터 및 CTP판재 생산회사인 아주하이텍(주)과 고품질의 써멀 CTP판재와 써멀 CTP세터를 혁신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략적인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주)이노플레이트 정태환 대표이사는 “국내 인쇄 시장이 매이저 판재 공급회사 및 장비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이유로 인쇄회사들은 고객사임에도 불구하고 장비 공급회사의 눈치를 보며 CTP장비와 판재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MOU를 통해 고품질의 CTP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인쇄시장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이노플레이트는 써멀 CTP판재와 포지티브 CTcP, 네가티브 CTcP 판재를 전문으로 판매 하는 회사다.

캐논코리아 'e-Club' 시스템 본격 운영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대표이사 김천주)은 자사 복합기 사용자의 원격관리시스템인 'e-Club'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제품을 사용하는 캐논코리아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별도 비용이 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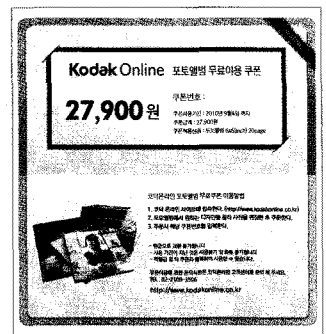
않는다. 제품을 관리하는 서비스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되고 약 15분 정도의 간단한 설치 과정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캐논코리아는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의 신속성이며 기존의 과정인 서비스센터 접수에 이은 서비스 사원 방문 처리에 비교하면 이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기기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그 정보가 서비스 사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서비스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사전에 이상을 방지할 수 있어 기기 멈춤으로 인한 업무 손실도 최대한 줄여 줄 수 있다. 그 외에도 고객의 업무환경과 사용습관에 따른 최적화를 위한 컨설팅 및 다양한 유무형의 부가적인 혜택도 제공된다. 캐논코리아 관계자는 “이제 서비스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며 “한발 앞선 서비스로 고객이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해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으로 대고객 이벤트와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e-Club가입을 늘려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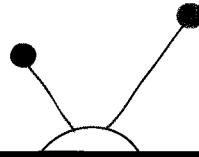
한국코닥, 코닥온라인 통해 문화 이벤트 진행

한국코닥(대표 루이스 레벡)은 코닥 온라인의 8월 이벤트로 9월 2일까지 '코닥온라인 문화이벤트-소문내기 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가 가능한 이벤트로 코닥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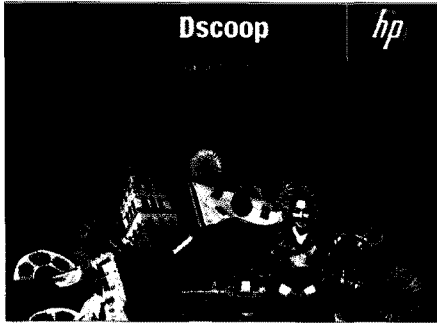
라인에 방문하여 '코닥온라인 문화이벤트-소문내기 왕 이벤트'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원하는 뮤지컬 또는 연극을 신청하면 된다. 뮤지컬 <트리아앵글> 또는 코미디 연극인 연극열전의 <너와 함께라면> 중에서 택1하여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또한 7~8월 코닥온라인의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구매고객에게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전원 비치볼을 증정하고, 포토앨범과 포토북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고급 스포츠 타올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중이다. 코닥 온라인은 코닥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인화, 포토북 사이트로 사진을 이용한 다양한 포토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신제품 · 제품관련 뉴스

HP, 9월 7일부터 서울서 Dscope Asia 개최

HP 이미지 프린팅 그룹은 오는 7~8일 양 일간에 걸쳐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제1회 Dscope Asia 세미나를 개최한다.



인디고 사용자들의 교육과 체험, 업계 교류를 위한 독립커뮤니티인 Dscope(Digital Solutions Cooperative)는 미국에서만 개최되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게 된 의미 있는 행사라고 한국HP의 관계자는 소개했다.

제1회 Dscope Asia 세미나에 이어 8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인쇄산업전시회(KIPES) 및 HP고객사인 한국학술정보 투어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4,300여 HP 인디고 디지털 프레스 고객사가 참여하게 되며 세미나의 주요 연사로 Blurp, Communisis, Datamail, CGX 등 북미와 유럽, 아태지역의 디지털 인쇄 업체를 선도하는 HP 인디고 고객사들이 방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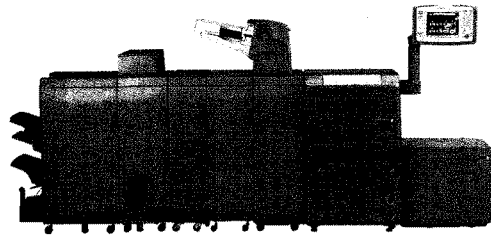
한국후지제록스, Thank You COLOR 행사 개최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9월 1일, '직장인 다시 태어나다!'라는 주제로 'Thank You COLOR'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2010년 하반기 디지털 인쇄 시장을 선도할 컬러 신제품을 국내 최초로 공개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사무환경에서 빛을 발하는 한국후지제록스의 첨단 제품 및 솔루션을 소개한다. Thank You COLOR 행사는 문서보안, 그린 IT, TCO 절감 등 6가지 주제의 세미나와 함께, 한국후지제록스의 제품과 솔루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Zone으로 구성했으며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 복합기와 연계한 모바일 프린팅을 선보인다. 한편 다양한 이벤

트도 진행된다.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려 출력해주는 이벤트, Web Art를 이용한 전자 서명 등 재미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캐논코리아, 경인쇄용 흑백 복합기 iR ADVANCE 8105/8095 출시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대표이사 김천주)은 전문 출력사, 대기업 오피스 등을 겨냥한 경인쇄용 고속복합기 iR ADVANCE 8105/8095 2기종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iR ADVANCE 8105/8095는 A4용지를 기준으로 105매(95매/분)의 출력 속도와 분당 200매(흑백 이미지 기준)의 강력한 스캔 기능을 갖췄다. Real 1200dpi의 고해상도 출력과 신규 토너 채용으로 고품질의 하프톤을 재현할 수 있다. 경인쇄 시장에서 필요한 중철 제책과 편칭, 트리머, 접기 출력 등 다양한 후가공을 지원해 고품위의 소책자, 판촉용 DM, 고지서 등을 제작할 수 있으며 최대용지사이즈는 330.2×487.7mm이며 다양한 비정형크기의 용지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최대 급지매수는 7700매로 많은 양의 출력물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캐논코리아 관계자는 "불경기라 대량으로 출력하지 않고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 출력하는 POD(Print on Demand)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고품질 제작물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고 있어 경제적이면서 우수한 출력 품질을 앞세운 이번 신제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밝혔다.

로하스프린트 한국지점, 정전기 방지제품 공급

로하스프린트(주)는 최근 한국지점(지점장 고영철)을 설립하고 정전기 방지 제품들을 공급함과 동시에 전용 쇼핑몰인 'http://no-Static.asia'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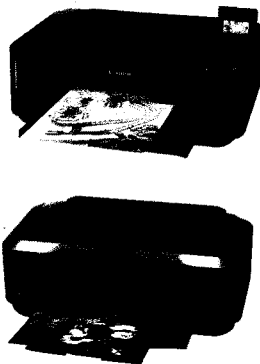
설했다.

로하스프린트(주) 한국지점은 기존의 고가의 정전기 대책용 장비와 비교해 10만원대부터 저렴한 가격대의 장비를 공급한다. 또한 전력이 필요없기 때문에 유지비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치방법도 간단하다.

고영철 한국지점장은 “건조해지기 쉬운 가을과 겨울 뿐 아니라 4계절 내내 인쇄업체에서 정전기 때문에 고민을 한다. 기존의 정전기 대책용 장비나 장치는 고가인데 비해 효과가 있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본사의 정전기 방지 제품은 2000년부터 인쇄업체를 비롯해 다양한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캐논, 풀HD 동영상 출력 가능한 복합기 출시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대표이사 김천주)은 잉크젯 복합기 MP287, MP497, MG 5170<사진 위>과 잉크젯 프린터 iP4870<사진 아래>, 평판 스캐너 LiDE110, LiDE210 등 6종의 모델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잉크젯 복합기와 프린터는 캐논 DSLR 카메라로 찍은 F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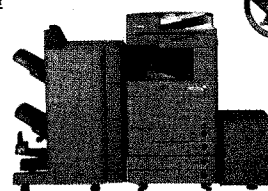


HD 동영상을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동 보정해 고품질의 사진으로 출력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 ‘Easy Web Print EX’ 기능으로 웹에서 간편하게 이미지를 편집해 출력할 수 있고, 웹 페이지의 중요한 부분을 자동으로 클립, 페이지 전체로 확대출력 하거나 복수 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줄여 넣을 수 있다. Booklet 기능이 추가되어 간편하게 책자형식으로 편집하여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력품질은 포토출력용 염료잉크와 문서출력에 적합한 안료잉크를 함께 장착한 하이브리드 잉크시스템과 1~2pi(피코리터: 1조분의 1)의 잉크방울을 사용하며 9600dpi와 4800dpi의 고품질로 출력할 수 있다. 캐논코리아 관계자는 “DSLR 카메라가 잡아내는 최상 화질을 그대로 표현하는 DSLR 프린터가 이제는 HD동영상도 출력할 수 있게 돼 프린팅 문화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며 여기에 손쉬운 이미지 편집기능과 캐논만의

고품위 컨덴츠로 차별화된 프린팅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캐논 컬러 복합기 IR ADVANCE C5051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 수상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대표 김 천주)은 소비 자시민모임에서 주최하는 제14회 에너지 위너상에서 3년 연속으로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을 수상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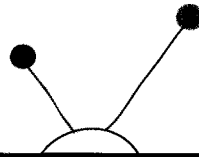
다고 밝혔다.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은 기업의 에너지효율 기술과 제품 개발을 격려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1997년 처음 제정되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에너지 위너상을 받은 캐논 컬러 복합기 IR ADVANCE C5051은 On-Demand 정착 방식이 채용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토너를 종이에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높은 열을 짧은 시간 내에 발생시켜 기존 히트롤러 정착방식 대비 소비전력을 약 1/4 수준으로 낮추는 기술이다. 캐논코리아 관계자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절전기능을 장착하는 것은 이제는 필수요소이며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식물유기성 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 사용을 늘려 나가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후지제록스, 美 바이어스랩 선정 에너지 효율 부문 ‘올해의 제품상’ 수상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지난 8월 12일 친환경 복합기 아페오스포트-IV C3370이 미국의 사무기기 평가 전문기관 바이어스랩 (Buyers Laboratory Inc.)으로부터 에너지 효율 부문 ‘올해의 최우수 제품 상 (2010 Outstanding





Achievement)' 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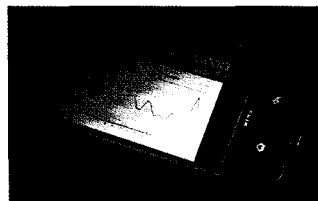
바이어스랩은 복합기, 프린터, 스캐너 등 사무기기의 기술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매년 실시해 경쟁 제품군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제품에게 '올해의 최우수 제품상' 을 수여한다. 한국후지제록스의 아페오스포트-IV C3370은 복합기의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전반적인 평가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며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바이어스랩의 종합적인 테스트 결과 아페오스포트-IV C3370의 에너지 소비율은 경쟁 제품들의 평균 에너지 소비율 대비 50% 이상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후지제록스의 앞선 친환경 기술이 대거 탑재된 이 복합기는 출력 모드, 대기 모드 등 어떤 상태에서도 동급 대비 가장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입증 받았다.

한국후지제록스 황인태 영업본부장은 "녹색 성장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서도 친환경 사무기기를 도입하는 추세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며 "에너지 절약과 비용 절감을 실현하는 녹색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이 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도비, 어도비 온라인 마케팅 스위트 발표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이사 지준영)는 지난 8월 18일 옴니추어 기술이 탑재된 '어도비 온라인 마케팅 스위트' 에 소셜 미디어와 모바일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어도비는 2009년에 온라인 비즈니스 최적화 기술의 리더인 옴니추어(Omniture)를 인수, 관련 제품을 어도비 브랜드 명으로 통합하며, '옴니추어 기술 탑재' 라고 표기하고 있다.

옴니추어 기술을 탑재한 '어도비 온라인 마케팅 스위트' 는 △웹사이트 사용분석에 대한 리포팅과 대시보드 기능 향상은 물론 △페이스북(Facebook) 광고를 위해 향상된 입찰 전략 기능 △구글 콘텐츠 네트워크(Google Content Network)를 위한 온라인 광고를 쉽게 제작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이미지 광고 지원 기능 △블랙베리와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실시간 콘텐츠 개인화 서비스 등이 특징이다.

한국어도비의 지준영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 등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며 "어도비 온라인 마케팅 스위트는 마케팅 전문가들로 하여금 다양한 온라인 사용자들의 이용 행태를 분석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ROI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어도비는 최근에 옴니추어 기술을 활용한 '어도비 서치센터+' 를 발표하여 마케팅 전문가들에게 페이스북 광고 최적화 방안과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다.

홈페이지_ www.adobe.com/kr

니콘, 유럽영상음향협회 어워드 2개 부문 수상

니콘이미징코리아(대표 우메바야시

후지오)는 자사의 DSLR 카메라 D3S와 교환 렌즈 AF-S NIKKOR 300mm F2.8G ED VR가 2010-2011 유럽영상음향협회



(European Imaging and Sound Association) 어워드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

EISA는 유럽의 주요 카메라, 영상, 오디오 관련 약 50여 개의 전문잡지가 회원으로 속한 단체이며, 매년 유럽에서 출시된 영상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의 제품을 선정하고 있다. 니콘의 플래그십 DSLR 카메라인 D3S는 '유러피안 프로페셔널 카메라' 부문을 수상했다. D3S는 보도 사진, 스포츠 사진, 다큐멘터리 사진 등을 전문으로 촬영하는 프로 사진 작가들을 위한 고성능의 니콘 FX포맷 DSLR 카메라다. 동영상 촬영 기능인 '디무비(D Movie)' 를 탑재했으며, 감도는 상용감도 ISO 12800, 확장 시에는 ISO 102400까지 지원한다. 뛰어난 성능과 내구성, 기계적 완성도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 국제 우주 정거장(ISS)에서 사용되고 있다.

AF-S NIKKOR 300mm F2.8G ED VR 렌즈는 '유러피안 프로페셔널 렌즈' 부문을 수상했다. 어두운 상황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에서 고품질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점과 색수차 억제력, 손떨림 보정 기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판 및 관련업계 뉴스

출협 등 출판·서점계 단체장 기자회견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백석기)를 비롯한 출판 및 서점계 단체장 11명은 지난 7월 21일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를 상대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출판지식문화산업의 내일을 걱정한다’는 제하의 성명서에는 △세대로 된 출판진흥기구를 설립하고 출판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흡결 투성이인 현행 도서정가제 법령 개정△저작권법 등 출판 관련 법령의 올바른 개정 △정부의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은 기존 출판계와 연계하여 추진할 것 △체계적인 독서진흥정책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 지원조직의 설립 △국민 약속인 ‘출판지식산업육성방안’ 10대 과제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6가지 요구사항을 담았다.

또한 향후 본 사항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이번 출판 및 서점계 단체장의 뜻을 담은 출판계의 요구사항이 정부의 출판정책 수립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 출판계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10 간행물문화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 진행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양성우)는 최근 양서저술 및 출판문화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

여 ‘2010 간행물문화대상’을 시상한다고 밝혔다. 1990년부터 매년 시상해 온 ‘간행물문화대상’은 저작상, 출판인쇄상, 특별상 등 3개 부문별로 시상하며 상패와 함께 상금 500만원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 저작상 : 양서 저술을 통해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출판인쇄상 : 출판활동을 통해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특별상 :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거나 출판물 통해 청소년의 인격 형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수상 후보자 추천은 8월 9일부터 9월 27일까지 인터넷이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접수하며 시상식은 10월 27일 오후 3시 프레스 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출판기획팀 간행물문화대상 담당자(02-2669-0772~3) 또는 홈페이지 (www.kpec.or.kr)로 문의하면 된다.

전자출판협회, 전자책제작지원실 오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전자출판협회는 9월 1일부터 파주출판도시 전자출판공동제작센터 내에 ‘전자책제작지원실’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전자책제작지원실은 매킨토시(G4, G5), 제단기, 제책기, 고속스캐너, 최신PC와 아이폰, 안드로이드 기반 각종 전자책 제작프로그램, OCR, 인디자인 등의 프로그램을 구비하였으며 저작권, 세법, 유통마케팅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와의 비즈니스 교류도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도 전자책열람실에서는 연매출 30억 원 전자책 패키지 등 1천여종의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으며 e-Book Award 수상작품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창업비즈니스과정, 전자책 개발자 과정, 모바일 전자책 개발자과정, 전략비즈니스과정 등 전문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및 세법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용시간은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중 오픈이며 이용신청 및 문의는 031-955-0041~2 또는 홈페이지 www.kepa.or.kr에서 하면 된다.

제지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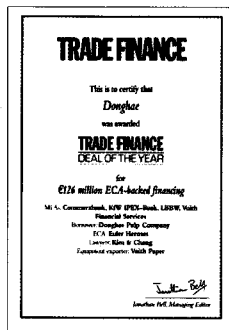
무림, 창립54주년 기념식 거행



무림(대표 김인중)은 지난 7월 26일 창립54주년을 맞아 서울 신사동 본사 사옥 리프레시룸에서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인중 사장을 비롯해 본사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무림페이퍼 진주공장과 무림SP 대구공장도 지난 7월 23일 별도의 기념식을 가지며 다함께 창립54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밝혔다. 이동욱 회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지난 54년간 때때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발전의 에너지로 활용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또한 “무림P&P 일관화공장 건설로 한국 제지역사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도전을 우리가 이미 시작했다”며 “서로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자”고 말했다.

무림P&P, 2009년 최고 성공적 Deal로 선정

무림P&P(대표 김인중)는 최근 유럽 최고의 금융잡지인 ‘Trade Finance’로 부터 2009년 최고의 성공적인 Deal중 하나로 무림P&P의 일관화건설 주요설비 해외투자 자금유치를 선정했다. ‘Trade Finance’는 2009년 무림P&P의 해외자금 유치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투자 유치였다고 밝혔다. 한편, 무림P&P는 내년 5월 상업생산 계획인 펄프·제지 일관화공장 건설 자금 중 독일



국영은행 KfW 등 유럽의 금융 콘소시엄으로부터 지난해 10월 1억 2600만 유로를 장기저리로 투자 받은바 있다.

무림페이퍼, 협력사와 ‘그린파트너십’ 협약 체결



무림페이퍼(대표 김인중)는 지난 7월 20일 오전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국내 인쇄용지업계 최초로 협력사와 그린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무림페이퍼 김인중 사장, 무림페이퍼의 협력사인 세한산업 오세용 대표를 포함한 협력사 20개사 대표와 지식경제부 김대자 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림페이퍼는 전문가 그룹과 함께 향후 2년간 20여개 협력사의 온실가스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협력사가 탄소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저감하여 향후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무림페이퍼는 20개 협력사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에너지 관리 진단 및 자재구매부터 생산과 폐기,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산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등을 추진하며 오는 2011년 5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 원단위를 기존 대비 각각 5%씩 절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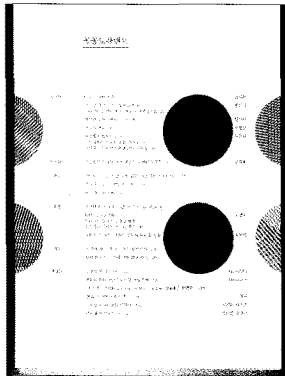
삼원페이퍼

Books Talk _ Books and more Books전

삼원페이퍼갤러리(대표 이연욱)는 오는 9월 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일상생활에서 또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자리잡고 있는 ‘책’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Books Talk _ Books and more Books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북 아티스트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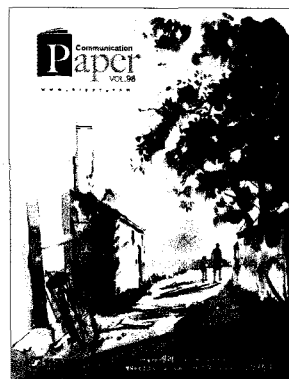
를 ‘수작’ 과 independent publisher ‘미디어버스’ 두 그룹이 참여해 아트와 디자인을 넘나드는 영역에서 서로의 관점을 통해 책을 유기적이고 독특한 느낌으로 해석한다.

책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비주얼과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보다 심오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출발하여 책이라는 작업물로 완성시키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은 각 그룹이 가지고 있는 색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크로스 오버의 형식을 표방하며 책 그 이상의 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표현된다. 짜임새 있는 구성을 통한 자유로운 발상 그리고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의 자유로운 표현방식은 책이 가지고 있는 평면적인 작업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오프닝 워크숍에는 전시 참여그룹인 수작과 함께하는 실크스크린작업 및 폴더북 만들기, 크라프트 앨범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한국제지 사외보 ‘paper communication’ 개편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사외보 ‘페이퍼 커뮤니케이션’을 새롭게 개편, 발행하여 임직원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문화를 전파하고 임직원간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사내외 고객 중심 콘텐츠 확보하고 사내, 사외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혼합보적 성격을 강화한 것이 이번 개편의 특징이다.



개편된 여름호는 총 74페이지로 네버엔딩 스토리(한국제지 OB 탐방), 백지장도 맞드는 사람들(한국제지의 사회공헌), 우리 가족 만세(달은풀 임직원 가족 탐방 및 가족사진 액자 제공), 현장 스케치(한국제지 소모임 탐방), 우리는 파트너(한국제지 기업·개인 고객 탐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제지 비전 선포식 개최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지난 8월 16일 온산공장에서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김창권 사장은 ‘고객의 가치와 미래를 창조하는 세계일류 친환경 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World Best Company로 도약’, ‘고객과 함께 성장’, ‘창의적 조직문화정착’을 미션으로 선포하고 핵심가치로 ‘세계최고’, ‘고객지향’, ‘성과추구’, ‘창의·혁신’으로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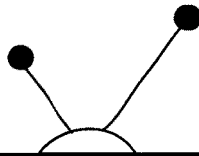
한국제지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외형 확대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사업 합리화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며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10년 내 매출 3조원의 글로벌 종합 제지회사로 도약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제지 사무관리직 직위 제도 개선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사무관리직의 직위 호칭이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과 업무수행 목적상 통용되기 쉬운 호칭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사원과 주임은 그대로 유지되고 차석은 과장대리와 과장으로 수석은 차장과 부장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급체계는 유지하면서 직위 제도만 개선하였으며, 변경된 호칭은 지난 8월 9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솔제지, 고객가치123 체제 구축

한솔제지(대표 오규현)는 고객과 상생 발전 모델 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객가치 창출 활동의 일환으로 ‘고객가치 123 체제’를 구축한다. ‘고객가치 123’은 1등급품질/맞춤품질,



20% 원가절감, 3시간 내 납기 체제로 요약할 수 있다.

한솔제지는 500억 더블코팅 설비투자 효과 및 한솔과 아트 원 4개 공장, 7개 초지기의 생산 전문화로 최고 품질, 고객별 맞춤 품질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며, 원가면에서는 원부재료 통합구매 및 에너지 시설 투자를 포함한 혁신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납기 면에서는 주단위 생산체제(4cycle) 운영 및 수도권 통합 배송시스템(6개 물류거점 확보) 구축을 완료해 3시간내 납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사 무재고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솔제지 오규현 대표이사는 “한솔제지가 지난 40여년간 국내 1위 제지기업으로 자리매김 해온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품질, 원가, 납기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과 상생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솔제지는 고객가치창출 활동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고객가치창출팀을 발족, 기술연구소 등 인프라를 활용 고객사의 인쇄기술 제고 및 원가절감을 지원해오고 있다.

해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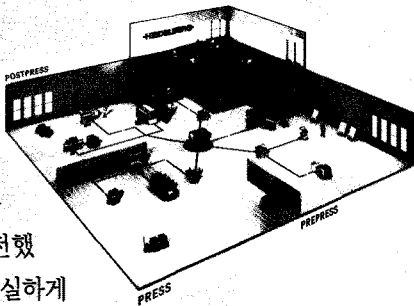
컴팩트한 워크플로 통합 솔루션, 프리넥 S

하이델베르크는 프리넥 S

를 사용하는 인쇄 회사에게 인쇄사가 자신의 모든 인쇄 작업을 오더 중심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전했다.

이것으로 더 확실하게 전체를 보고 에러를 방지할 수

있게 되며 직원들은 모든 문제를 먼저 확인하거나 관계된 정보를 찾아내려고 할 필요 없이 작업을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공정은 능률적이라고 Kalus-Detlef Freyer 제품 매니저는 밝혔다. 이외에도 프리넥S는 전통적 작업 방식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부합되는 편리함을 갖추고 있으며 작업 처리를 조율하며 자동화한 작업을 수행한다. 워크플로 솔루션은 자동으로



프리플라이트 단계에서 고객이 제공한 PDF 문서의 에러를 검사하며 인쇄회사에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는 그 시점에서 컬러 매니지먼트와 트랩핑의 두 가지 선택적 기능을 사용하여 특정 인쇄 프로세스에 PDF를 맞추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프리넥 S가 판 이미징 전 마지막 단계에서 'in-RIP' 기능으로 이러한 최적화를 수행하도록 그 시점에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다.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 원본 PDF는 변하지 않게 된다. IPEX 2010에서 처음 선보인 프리넥 렌더러(Prinect Renderer)를 통해 RIP에서 투명도 효과(transparency)와 같은 특수 효과를 도입하는 것이 쉬우며 렌더러는 메타디멘존 RIP에서 지원하는 입증된 스크리닝 방법을 다룰 수 있다. 또한 어도비 PDF Print 엔진을 사용하여 교정과 판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장한다. 하이델베르크는 프리넥 S는 낮은 비용으로 자동화된 인쇄사 워크플로를 처음 시작하는데 맞는 콤팩트한 솔루션이며 전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빠르게 하여 작업자들이 정말 중요한 작업에 집중하도록 자유롭게 해 준다고 지적한다. 또한 매력적인 선택적 기능과 업그레йд 패키지로 완벽히 통합된 인쇄사 운영을 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쉽게 늘려갈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하이델베르크 고객용 잡지, Best Of Corporate Publishing Awards 2010서 금메달 획득



하이델베르크의 고객 잡지인 'Heidelberg News'(HN)가 유럽 내 기업 출판물 최대 경연대회인 'BCP(Best of Corporate Publishing Awards)'에서 금메달을 획득, 하이델베르크 뉴스가 성공적인 잡지임을 과시 했다. HN는 과거 유럽에서만 6번 은메달을 받았으며 북미 지역에서는 많은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들은 “지난 해 후보에 올랐으며 올 해 금메달 자리에 서게 된 하이델베르크 뉴스는 인쇄 기술의 세계에 대한 깊은 식견을 제공하며 복잡한 상호관계가 간단한 말로 설명되어 있고 전체는 명확하고 논리적인 이미지와 그림들이 담겨있다”는 말로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하이델베르크의 글로벌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총책임자 아드리아나 누네바는 “하이델베르크 뉴스는 인쇄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파트너십에 근거한 접근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한 종합적 방법의 핵심 요소”라며 “따라서 하이델베르크는 BCP 수상에서 성공한 것을 이 전략을 계속 추구하는데 있어 동력을 얻게 된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보안인쇄에도 하이델베르크 인쇄기 호평

하이델베르크는 보안 인쇄에도 하이델베르크의 인쇄기들이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한 보안 전문 인쇄 회사가 최근 하이델베르크로부터 새로운 스피드마스터 SM 102, 6도 UV 인쇄기에 장착되는 레인보우 장치가 있는 150번째 인쇄 유닛을 받았다. 레인보우 인쇄는 하나의 잉크 파운틴에서 다양한 잉크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레인보우 장치는 특별한 나이프 타입 잉크 파운틴, 개별 조정 잉크 분배, 그리고 잉크 파운틴에서 잉크 분리 기능을 갖추며 다양한 잉크는 하나의 잉크 파운틴에서 결합되어 용지에 콘트롤된 미세한 선들을 만들며 그로 인해 생기는 인쇄 모티브 내 비네트가 보안 인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네덜란드에 있는 한 고객은 최근 레인보우 인쇄 장치가 장착된 첫 스피드마스터 XL 105를 사용하기 시작할 정도로 레인보우 인쇄는 이미 스피드마스터 SM 52, SM 74, XL 75, 및 CD/SM 102 시리즈에 공급되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세계 최대의 은행권 인쇄처인 중국화폐인쇄제조회사(China Banknote Printing and Minting Corporation, CBPM)에서 여러 지점에 12대의 스피드마스터 CD 102 인쇄기를 설치했는데 모두 은행권 인쇄를 위해 레인보우 인쇄 장치를 장착했었다. 브라질, 미국과 유럽에서 보인 인쇄를 전문으로 하는 인쇄사도 하이델베르크의 특수 인쇄기를 사용하며 이들 인쇄기들은 주로 은행권, 보안 용지, 카드, 면허증, 신분 증명 용지, 우표, 납세필인지 등을 인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코닥, '그래픽 디자인' 지의 표지 컨테스트 후원

코닥이 후원하는 그래픽 디자인(Graphic Design USA, GDUSA) 잡지의 디멘셔널 프린트 커버 컨테스트에서 참가자들은 이 잡지의 9월호 표지로 사용될 디자인을 선보이게 된다. GDUSA 편집자들은 전반적인 시각효과,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NEXPRESS Dimensional Printing System을 표지 디자인으로 잘 드러냈는지 등에 대해 평가하여 수상자를 가린다. 선정된 수상자는 2010 그래픽 엑스포에서 코닥의 초청을 받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GDUSA의 출판자인 Gordon Kaye는 “최근 연간 인쇄 디자인 설문에서 디지털 프린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서 응답자의 80%가 디지털 단기인쇄를 구매하거나 추천한다고 대답했다”며 “항상 보다 독자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코닥의 디멘셔널 프린팅과 같은 혁신적인 디지털 인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디멘셔널 프린팅은 넥스프레스 디멘셔널 클리어 드라이 잉크를 코닥 넥스프레스의 5번째 이미징 유닛에 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넥스프레스 드라이잉크를 인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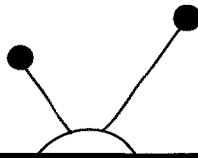
홈페이지_ www.gdusa.com/contests/cover/2010/index.php

코닥, 인터테크 테크놀로지 어워드

코닥은 미국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업계에서 가장 큰 영예인 2010년 InterTech™ Technology Award 두개 부문을 수상했다. 코닥은 여섯 개 부문 중 두개 부문을 수상한 유일한 복수수상자다. 코닥은 상업, 데이터, 출판 및 패키징 인쇄업계의 혁신적 솔루션에 대해 지난 몇 년 간 총 26개의 InterTech Technology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

수상한 제품은 KODAK PROSPER S10 Imprinting System 과 KODAK DIGICAP NX Screening이다. 코닥 PROSPER S10 임프린팅 시스템은 뛰어난 이미지 품질과 생산성을 일관성 있게 낮은 비용으로 제공해 보다 효과적이고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제공하는 모노크롬 잉크젯 솔루션이다. DIGICAP NX Screening은 필름 인쇄의 플렉소그래픽 인쇄 도중 잉크 전환 효율성을 상당히 향상시켜 플렉소 인쇄업자들이 패키징을 그라비아 인쇄로 동일한 품질 수준에서 경쟁하고 높은 인쇄밀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코닥 B2B마케팅 디렉터인 Chris Payne부사장은 "PROSPER S10 System과 DIGICAP NX Screening은 고객들이 시장에서 그들의 사업을 차별화시키도록 해주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며 이에 따라 그들의 고객으로부터 마케팅 투자수익률을 높이도록 돕는다"며 "이번 수상은 고객들이 그들의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솔루션 구축을 약속하는 코닥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패키징 인쇄업체인 Ultimate Packaging의 존 피셔 생산 디렉터는 "지난 10년간 시장에서 봐 온 것 중 가장 큰 기술혁신이며 저희의 고객들은 인쇄물들이 얼마나 생동감 있고 깨끗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향상된 색상 수준으로 인한 효율성은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뛰어난 혁신적 기술의 대명사로 알려진 InterTech Stars는 오는 10월 3일 시카고에서 열릴 2010 Printing Industries of America Premier Print Awards 및 InterTech Technology Awards Gala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코닥 VERSAMARK VL4200 인쇄시스템으로 RotOcean 일간지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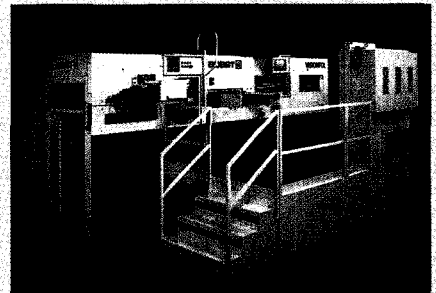
RotOcean은 코닥 기술로 인도양상의 작은 섬인 레위니옹에서 최초로 인쇄하는 일간지를 발행한다. 레위니옹의 French island에 위치한 인쇄업체인 RotOcean은 KODAK VERSAMARK VL4200 Printing System 을 사용하여 지역, 국내, 국제 신문을 인쇄하게 된다. RotOcean의 투자는 잉크젯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RotOcean이 VERSAMARK VL4200 System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신문의 최초 발행일에서 최소한 하루는 더 걸려서 항공편으로 국내/국제 신문이 이 섬에 운송되었다.

RotOcean의 이사 겸 공동 매니저인 Hubert Pedurand는 "RotOcean은 이 섬의 구시대적인 신문 운반방식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며 이 외에도 저명한 타이틀을 소개할 예정이며 빠른 속도와 높은 생산력을 자랑하는 VERSAMARK VL4200 System에 대한 우리의 투자가 이 섬 거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신문이 발행된 날짜에 바로 그 신문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Rotocean이 코닥을 선택한 이유는 단기 인쇄물을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최적의 비용효율성을 제공하며

뉴미디어와 경쟁하기에 가장 유연한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Pedurand는 "신문을 디지털 방식으로 인쇄하는 것은 뉴욕과 두바이, 말타 등에서는 이미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지역에 저명한 국내 및 국내 신문을 배포하고 전자 미디어에 즉각 대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RotOcean은 VERSAMARK VL4200 System을 신문과 서적 두 가지의 라인으로 설치했으며 다양한 컷 디멘션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분당 128m의 비율로 45~160g/m²의 무게로 4컬러 인쇄가 가능하다.

BOBST, VISIONFOIL 104 공급

BOBST는 VISIONFOIL 104을 공급하고 있다. 핫포일 스탬핑 작업 시 최상의 레지스터 시스템이며 인텔리



전트 피더, 하이테크 포일 핸들링을 통하여 통합된 패키지의 개념으로 고품질의 금박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 비전포일104는 스트리핑을 포함한 일반 다이커팅 작업으로의 전환이 쉽고 뛰어난 유연성을 겸비했다. 평판 핫 스탬핑은 작업 환경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는 상/하부 플레튼의 변형 현상의 상쇄를 최적화한 금박기 내의 플레튼을 통하여 최소한의 면방 작업이 요구되며 작업 중 오차를 최소화한 견고한 구조이다. 또한 자동 압력 조절 장치를 통한 쉽고 빠른 작업 전환이 가능하다.

비전포일104는 시간당 7500의 속도에서의 정확한 레지스터, 밥스트 CUBE II 제어 시스템, OACS(Optimal Advance Computing System)을 통한 최적의 샤프트, 홀로그램 및 심(shim)라인 기술, 자동 압력 조절 장치 등을 통해 높은 생산성을 발휘한다.

만로랜드, 새로운 광고 캠페인 선봬

만로랜드는 2010년 하반기를 위한 메인 광고를 선보이고 있다. 종합적인 서비스 관리 시스템인 printservices와 인쇄재

료 브랜드인 printcom에 관련 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printservices - 종합적인 고객 관리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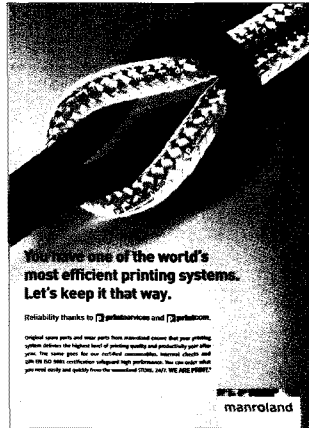
printservices를 통해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종합적인 서비스와 지원 프로그램으로 고객을 후원한다. 만로랜드는 고품질의 출판, 상업 및 포장 인쇄를 위한 인쇄 시스템들을 공급하고 고품질의 제품은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한다.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만로랜드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위해 전세계 시장들 및 고객들에게 가깝게 위치하고자 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전 세계 약 200여 국가, 100여 개 회사들과 함께 만로랜드는 새로운 서비스 표준을 정립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로 고객의 총체적인 부가 가치 생산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만로랜드는 고객과의 깊은 협력관계 유지를 중요시하고 모든 서비스를 전세계 전문가들에 의해 고객 기계의 총 수명기간 동안 모든 양상을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다. printservices를 통한 만로랜드의 목표는 한편으로 인쇄가 가용성을 최대화하는데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 공정을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증대 시키는데 있다.

printservices의 장점은 개별 고객 맞춤 상담, 전문적인 프로젝트 관리, 총체적 관리, 최대 시스템 유용성 및 높은 인쇄 품질을 위한 신속한 대응, 개별화된 서비스 및 업그레이드로 경쟁 우위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printcom - 만로랜드의 인쇄재료

만로랜드의 printcom은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여 인쇄 공정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인쇄재료 브랜드이다. printcom은 인쇄 능력(print competence)의 약자로서 인쇄실(pressroom) 제품 품질에 대한 manroland의 입장이다. 이는 printcom 상표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manroland 기술부서의 테스트와 인증을 거친 제품임을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그제 제품을 구매 및 판매하는 다른 회사들과 manroland가 차별화 되는 점이다.



manroland는 몇 개의 선택된 공급 회사들과 긴밀하게 협조함으로써 고객들에게 객관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

printcom 포트폴리오 - 블랭킷, 세척제, 습수 용액 및 실리 콘 유액, 윤활유 등은 여러 테스트를 거쳐 그 가치가 입증된 것이다. 가격 경쟁력이 있고 가격 대비 성능 비율도 양호한 것을 확인된 printcom 제품을 사용하는 인쇄 회사가 늘고 있다.

printcom은 빠른 납기의 실현, 인쇄 과정 지원 및 보호, 인쇄 품질 최적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인쇄 시스템 상태 유지, 생산 비용 절감, 필요한 관련 물류 창고 비용 절감, 최고 수준의 파트너 컨셉을 가진 전세계 네트워크 등이 장점이다.

HP, 가트너가 선정한 복합기 및 프린터 분야의 리더 기업 영예 안아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지난 8월 18일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Gartner)의 '매직 쿼드런트(Magic Quadrant) 보고서'에서 HP가 복합기 및 프린터 분야의 '리더 쿼드런트(Leaders Quadrant)'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IT 연구 및 자문 분야의 유명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는 매년 판매 업체들의 '실행 능력(ability to execute)'과 '비전의 완성도(completeness of vision)'에 따라 기업 순위를 정하는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에 따르면 HP가 '리더 쿼드런트'로 선정된 이유는 최근 웹, 모바일, 보안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 출시뿐 아니라 사용자들의 정보 출력과 프린팅 관리에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HP 이미징 프린팅 그룹의 레이저젯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사업부 수석 부사장 론 커플린(Ron Coughlin)은 "우리는 복합기 분야에서 고객을 위해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마다 유명 시장 조사 기관들이 HP를 최고로 선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HP가 끊임없이 진화하는 고객들의 독특한 요구에 부합하고자 이에 꾸준히 집중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